

서양-동양의학 접목 활발

경희·연세 의대등 사상체질이론·침술 적용 연구 잇따라

그동안 두터운 벽이 가로놓여 있던 서양의학과 한의학을 접목시키려는 노력들이 최근 의료계 한쪽에서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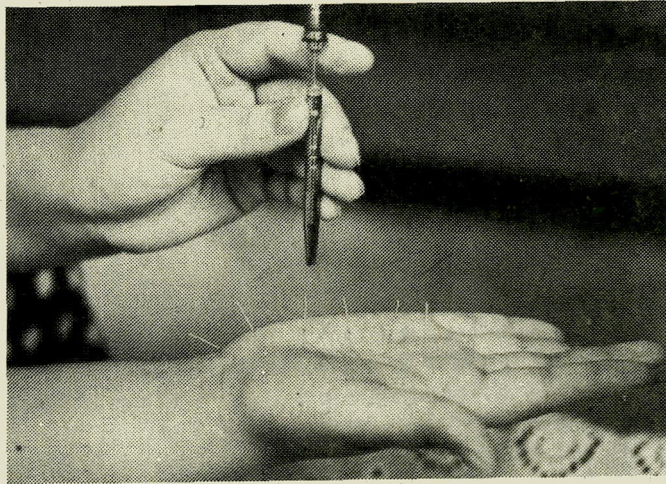
경희대 송지영(의대 신경정신·고병희(한의대 사상의학) 교수 등 현대의학 및 한의학 교수 6명은 최근 발표한 논문 '신체형질에의 신체증상에 대한 이체마의 사상체질의학 이론의 적용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한의학인 사상의학을 현대 정신의학에 적용시키는 시도를 해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논문은 신경증 환자 1백15명을 대상으로 1백년 전 우리나라 한의학자 이체마에 의해 처음 창안된 사상체질의 이론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하고 있다.

송 교수 등은 56가지 문항으로 이루어진 체질분류검사를 환자들에게 적용한 결과 태양·소양·태음·소음 등 4개 체질의 유형으로 뚜렷하게 구별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경증 환자들의 이런 구분은 현대의학의 성격요인 검사와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 논문은 이런 특징들을 근거로 앞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사상체질의 연구방법 등을 향상시키고 치료 반응까지 조사한다면 직관적이고 주로 경험적으로 이루어진 한의학 이론을 현대 정신의학에 적용시킬 수 있는 영역이 더욱 넓어질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연세대 의대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한방학 개론'을 4학년 전공 필수과목으로 개설하는 등 그동안 외면해왔던 한의학분야에 대한 본



최근 한의학의 큰 줄기인 사상체질이론과 침술요법 등을 현대서양의학과 접목시키려는 노력들이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 현대의학 전문가들쪽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시도들은 의학분야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격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한의학에 대한 학문적 이해 차원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지만 머지않아 전통의학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한 연구위원회를 설립할 계획이어서 한의학 연구가 크게 활성화할 전망이다.

경북대도 올해 안에 한의학 과목을 개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연세대에서 한의학 연구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은 세브란스병원 재활원장 전세일 교수다.

일찍이 지난 73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에 침술클리닉을 개설해 '동양의학통' 양의사로 명성을 날린 전 교수는 귀국 뒤에도 직접 침술을 사용해 환자들을 치료해오

고 있으며 한방학 강의도 직접 맡고 있다.

전 교수는 그동안 현대의학의 각종 물리요법으로 치료가 불가능했던 환자들이 침술로 큰 효과를 본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침술치료의 효능을 강조했다. 전 교수가 침을 놓는 부위는 현대의학에서 '유발점'이라고 부르는 약 50~60군데의 신체부위로, 이미 연구된 성과와 자신의 독자적 연구로 찾아낸 것이다.

전 교수는 최근 이 '유발점'이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경혈점'과도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이 확인됐으며 이는 두 이론의 접목 가능성을 드러내주는 중요한 발견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해 "유발점은 서양 의학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신체의 핵심부위로 경혈점과 대부분 일치한다는 것은 동양의학의 과학적 근거를 아울러 증명해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체질진단법' 창안으로 유명한 전 서울대 의대 해부학과 교수인 이명복 박사도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접목을 역설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의대 정년퇴직 뒤 병원을 개업해 사상체질에 따라 체질침법 치료를 하고 있는 이 박사는 "대부분 질환은 한방과 서양의학이 함께 적용됐을 때 훨씬 높은 치료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소신론자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한의학과 현대의학을 접목하려는 일련의 시도에 대해 워낙 두 분야의 접근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론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 찬성론자들은 의료분야의 영역을 넓히고 치료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 권장해야 할 시도이며 오히려 뒤통은 감이 있다고 반박했다.

전 교수는 "이미 서구 각국에서는 동양의학과 현대의학을 결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한의학의 본산인 우리의 경우 지금까지 이런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아 이 분야에서 뒤쳐질 우려가 높다"며 특히 서양의학 전공자들이 한의학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이재열 기자